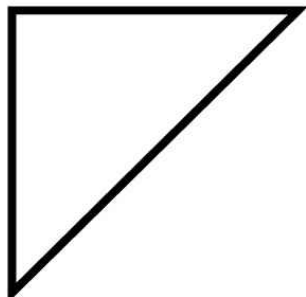


—
태국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 Industry
Trend of Thailand

20

19





태국 콘텐츠산업동향

CONTENT INDUSTRY TREND OF THAILAND

2019년 6호

구분(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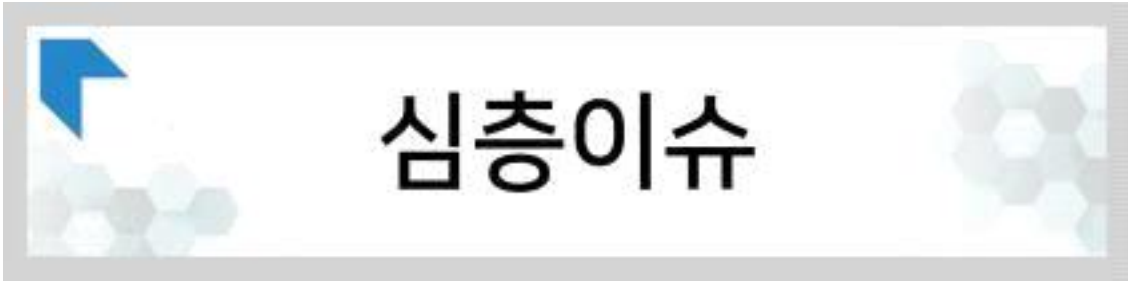
제 목

Key Word

<p>심층이슈</p>	<p>▶ 『태국 스타트업시장 동향』</p> <p>⇒ 2018년 태국 인터넷 경제 규모가 120억 달러에 달하여 동남아시아 권역 내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 규모를 가지고 있음. 비교적 안정된 인터넷 인프라와 중진국 수준의 GDP 및 구매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음. 아직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지는 못하였으나 국내외 VC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총 31건, 1억 55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음. 제조업 생산 기지 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국 정부에서도 고부가가치의 스타트업에 대하여 많은 지원 정책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있음. 동남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하여 서비스들이 주변국으로 조기에 진출하고 있으며 태국의 VC들도 해외 투자를 서두르면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이에 성장하고 있는 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투자 동향에 대한 추이를 알아보고자 함</p>	<p>태국 스타트업 VC 투자</p>
-------------	--	----------------------------------

2019.9.13.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태국 스타트업시장 동향』

◎ 작성취지

- 2018년 태국 인터넷 경제 규모가 120억 달러에 달하여 동남아시아 권역 내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 규모를 가지고 있음. 비교적 안정된 인터넷 인프라와 중진국 수준의 GDP 및 구매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음. 아직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지는 못하였으나 국내외 VC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총 31건, 1억 55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음. 제조업 생산 기지 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국 정부에서도 고부가가치의 스타트업에 대하여 많은 지원 정책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있음. 동남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하여 서비스들이 주변국으로 조기에 진출하고 있으며 태국의 VC들도 해외 투자를 서두르면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이에 성장하고 있는 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투자 동향에 대한 추이를 알아보고자 함

◎ 작성순서

- 태국 스타트업 환경
- 태국 주요 스타트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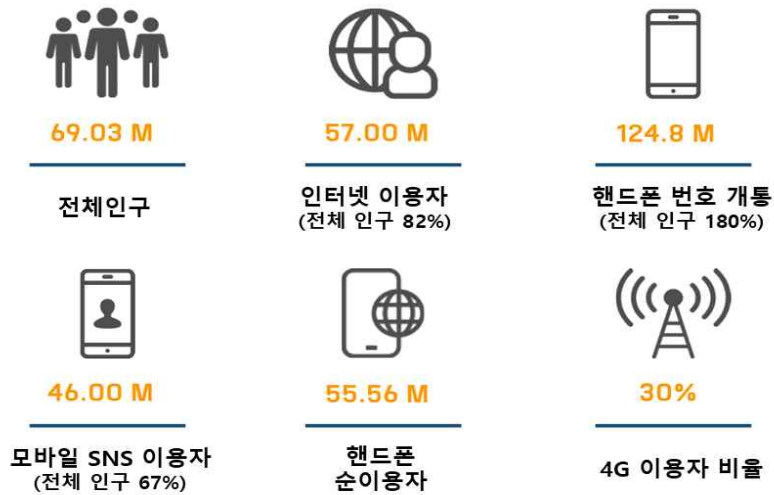
1. 태국 스타트업 환경

● 태국 스타트업 및 인터넷 산업 환경 개요

- 태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총 5,700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82%에

달하였으며, 개통된 핸드폰 번호는 전체 인구의 180% 수준인 1억 2,480만, 순이용자는 5,556만명에 이르렀음. 인터넷 이용자 및 핸드폰의 보급이 동남아시아 권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인터넷 인프라 또한 가장 좋은 편

[표 1] 태국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 및 전망 2015-2019



※ 출처 : 태국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nbtc.go.th)

- 중진국 수준의 GDP¹⁾와 발전된 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2018년 인터넷 경제²⁾ 규모가 120억 달러 수준에 달하여 동남아시아 내에서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를 이어 2위임. 인터넷 경제 규모는 2025년까지 43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태국 정부 지원

- 태국 정부는 중진국 산업 경제의 함정에서 벗어나고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하이테크 산업에 기반을 둔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6년 6월 정부는 디지털경제사회부(MDES)와 산하에 디지털경제 진흥기구(DEPA) 등을 만들어 디지털 창조 경제 증진을 위한 주요 산업 영역 및 중점 사안들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국가 혁신을 위하여 스타트업을 진흥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750여개의

1) 2019년 7,610 달러 (출처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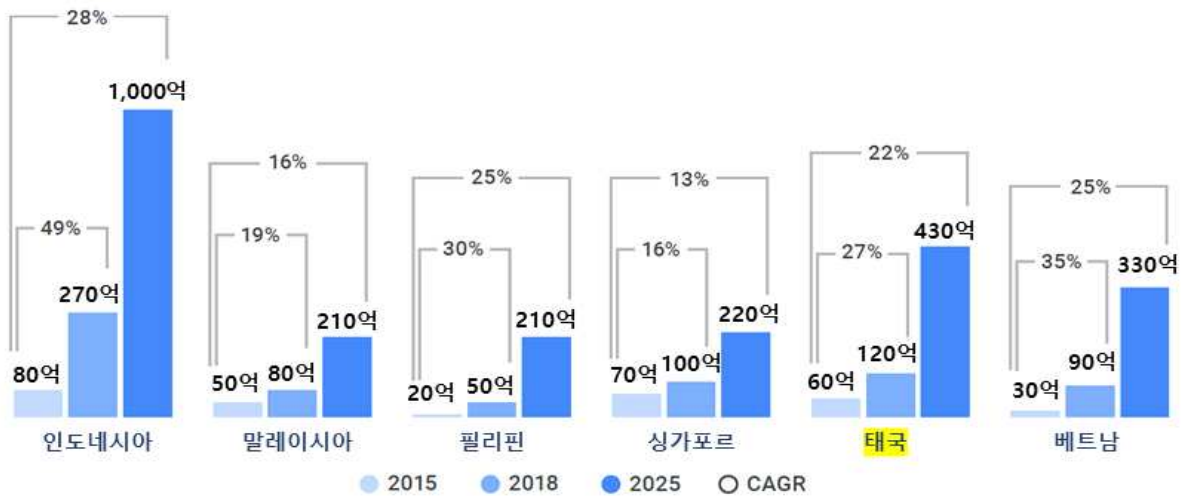
2) Internet Economy는 앱기반 차량 공유(Ride Hailing), 온라인 미디어/콘텐츠, 전자상 거래를 포함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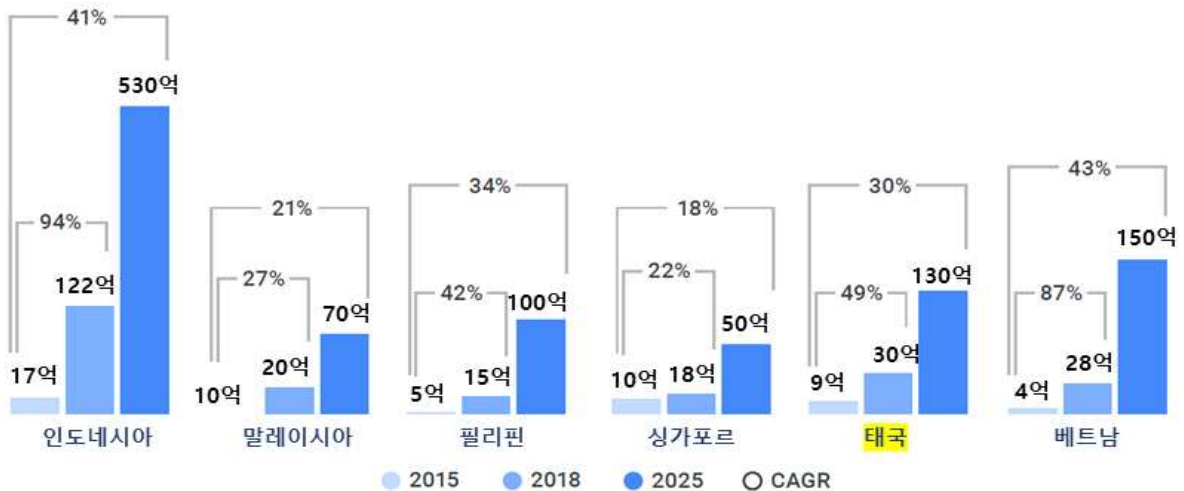
- 중장기 발전 계획인 <태국 4.0(Thailand 4.0)>에서도 2017~2021년의 10대 유망 분야에 스타트업 육성을 포함하여 3년 내에 태국 GDP의 5%를 스타트업 기업을 통하여 달성하고 전체 스타트업 개수를 1,00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표 2] 태국 인터넷 경제 규모 및 전망 2015-2025

동남아시아 국가별 Internet Economy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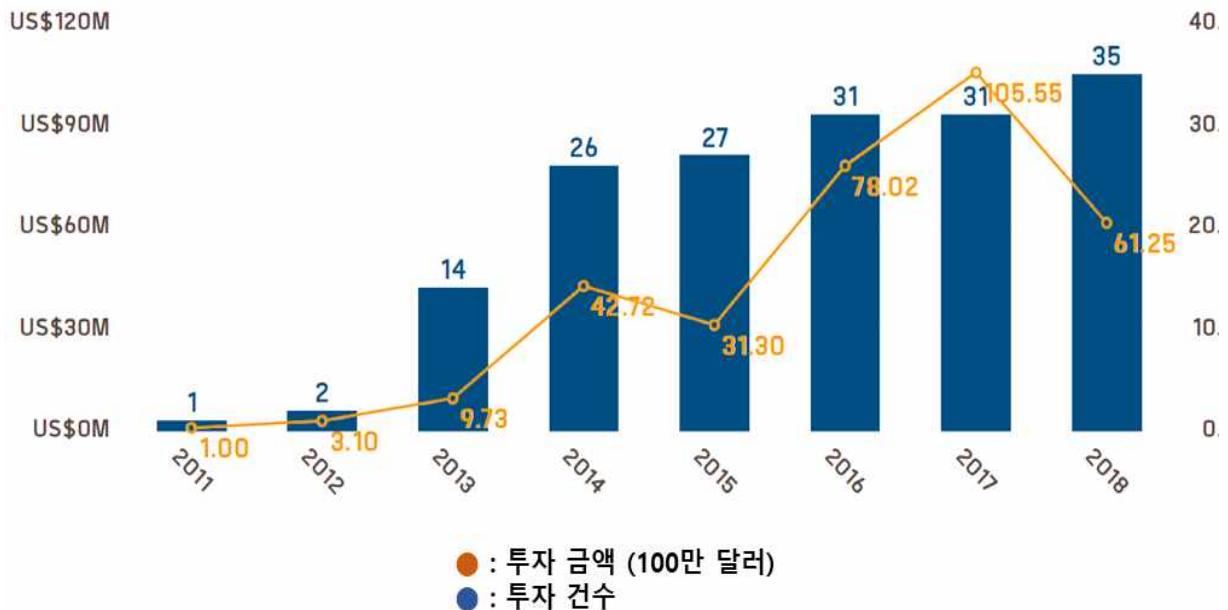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국가별 E-Commerce 시장 규모



※ 출처: 구글 테마섹 <e-Economy SEA 2018>

- 2019년 8월 태국 과학연구고등교육부(MHESI)³⁾는 스타트업 지원법, 샌드박스법, 태국판 베이돌 법안⁴⁾을 발표하면서 관련 산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음. 스타트업 지원법은 태국에 설립되는 국내 및 해외 자본의 스타트업 설립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태국판 베이돌 법안은 연구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해외 자본의 투자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하여 지난 2018년 2월 비자 제도도 유연하게 수정하였으며, 10대 주요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노동허가증 발급과 갱신을 완화하였음

[표 3] 2013 ~ 2019년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유치 현황



※ 출처: Techsauce 리포트 <Thailand Tech Startup ecosystem report 2018>

● 태국 스타트업 투자 환경

- GEDI(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이 발표한

3)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 2019년 5월 처음 설립된 장관급 부처로 고등 교육, 국가 단위 중요 과학 연구, 혁신 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4) Bayh-Dole Act, 미국의 주요 산학협력 정책으로,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연구 성과에 대한 특허권은 정부가 아닌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갖도록 하는 법안. 즉, 정부는 지원을 할 뿐이며, 지식재산권은 연구기관이 소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임

2018년 GEI⁵⁾에 따르면 전 세계 132개국 중에서 71위를 차지하였음. 세부 지표 중 인적자본, 제품개발, 혁신 프로세스 등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국제화, 위기 인식, 창업 문화 등에서는 낮은 점수를 얻고 있음

- 동남아시아 권역 내에서 태국은 상대적으로 시장 인구가 작아 아직까지 유니콘 기업은 배출하지 못하였으나,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 중진국 규모의 개인 구매력, 해외와의 활발한 교류, 정부 지원 등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조금씩 성숙하고 있음
- 2011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약 100만 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2017년에는 1억 550만 달러 총 31건 투자로 증가하였으며, 해외 VC 및 국내 VC 들이 신규 스타트업을 찾아 활발하게 투자에 나서고 있음. 태국의 VC 및 투자 자본들은 해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공격적으로 진행할 만큼 투자 여력이 높은 편이며 2018년에만 말레이시아의 그랩(Grab), 5,000만 불 투자를 비롯하여 총 8건의 투자가 진행된 바 있음. 태국 국내 자본의 투자는 주로 CVC⁶⁾가 이끌고 있으며, 더블A(Double A), 아센도(Ascendo) 등 대기업이 활발하게 투자에 나서고 있음
- 2018년에 진행된 스타트업 투자 중 인수 및 시리즈 B 투자를 제외하였을 때 대부분이 시드 단계(전체 49%)와 시리즈 A(전체 26%) 투자에 집중되어 있어 아직은 현지의 스타트업들이 각 분야에서 스케일업을 위한 시장성을 타진해보고 있는 단계임
- 태국의 1위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메신저를 운영하고 있는 라인 타일랜드(Line Thailand)와 라인벤처(Line Ventures)가 활발하게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엑셀러레이터 과정을 마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라인스케일업 2019(Line ScaleUp 2019) 프로그램을 새롭게 런칭하였음. 라인은 현재까지 태국에서 패트스워크(Fastwork, 480만 달러 투자), 셀수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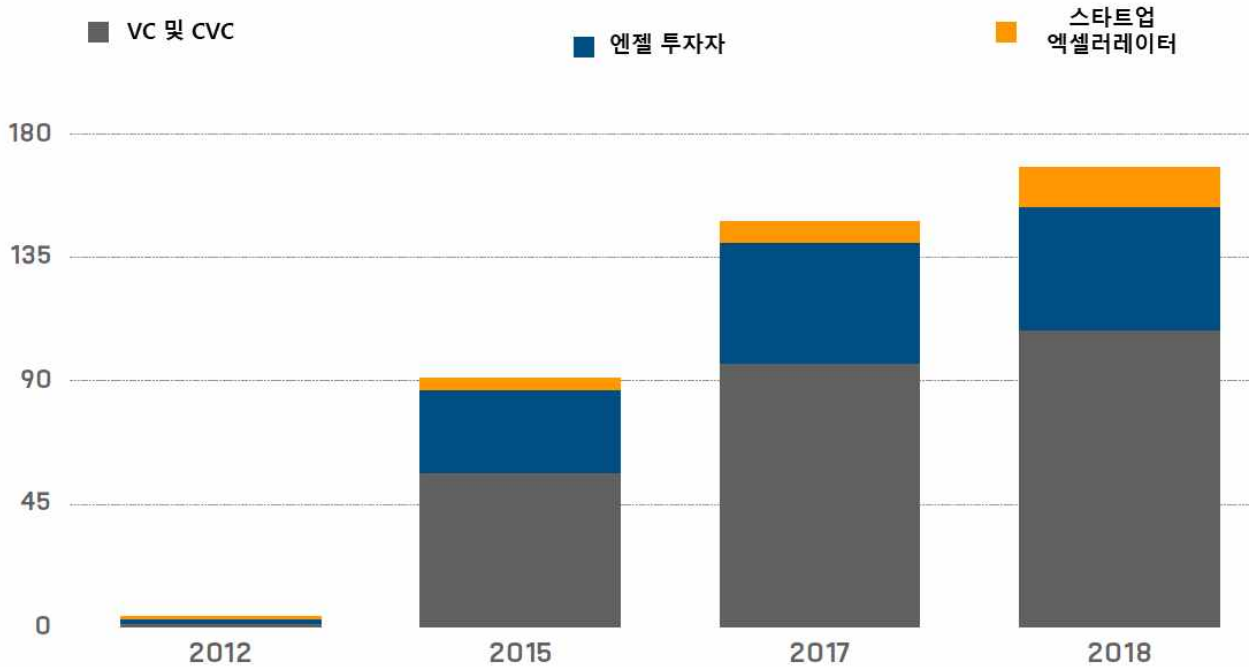
5)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기업 활동과 관련한 14개 지표를 평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국가 순위 발표

6) Corporate Venture Capital(기업 주도형 캐피탈), 주로 모기업이 창업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잘 갖추어진 모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 주로 대기업들이 참여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

(Sellsuki, 인수), DGM59(인수) 등을 통하여 현지 스타트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현재까지 태국에서 기반한 스타트업 서비스들의 주요 피인수건은 아고다 (호텔 예약, 2007년), 오피스메이트(전자상거래, 2012년), 원2카(차량 정보, 2014년), OIX(마켓플레이스, 2015년), 사눅(인터넷 포털, 2016년), 눈스운 (데이팅 앱, 2016년) 등이 있음
- 태국 국내에서 투자를 완료하였거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VC 및 CVC는 2018년 현재 90개 이상이며, VC 이외에 스타트업 인력 간 네트워크를 도와주고 초기 비즈니스 모델 정립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 그룹들도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음

[표 4] 태국 VC/엔젤투자자/엑셀러레이터 활동 현황



※ 출처: Techsauce 리포트 <Thailand Tech Startup ecosystem report 2018>

● 태국 스타트업 생태계

- 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으며, 국내외 VC들의 태국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헬스, O2O, 1차 산업, 핀테크 등 기존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로 스타트업들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배경으로 태국은 코워킹 스페이스가 잘 발달해 있으며, 서구의 프리랜서 직업군들이 여행과 더불어 태국에서 일하던 수요가 코워킹 스페이스의 발달과 함께 더욱 활성화 되고 있음
- 기업이 중심이 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들이 중심이 되어 스타트업 관련 행사, 비즈니스 모델 대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현지의 스타트업 관련 인력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액셀러레이터들은 CVC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초기 투자로 연결되고 있음







[표 5] 태국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출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자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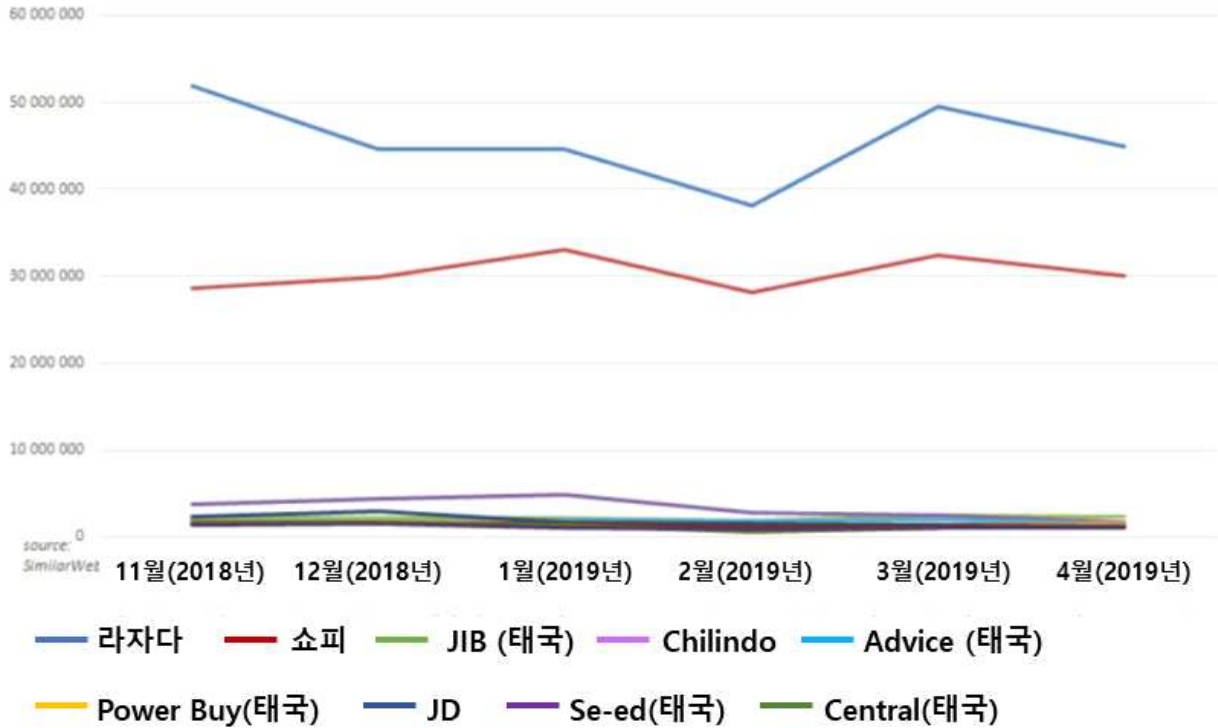
2. 태국 주요 스타트업 현황

[표 6] 태국 주요 스타트업

순번	회사명	상세 내역
1		분야 : 전자상거래 솔루션 / 배송대행 누적 투자 : 1억 830만 달러 서비스 개요 : e커머스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대행, 마케팅, 배송, 송장 관리 등 종합 솔루션 제공
2		분야 : 핀테크 누적투자 : 4,540만 달러 서비스 개요 : 온라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각종 화폐들에 대해 실시간 교환 및 결제 서비스
3		분야 : 전자상거래 누적투자 : 3,160만 달러 서비스 개요 : 패션 분야 특화 e커머스 사이트
4		분야 : 식당 리뷰/음식 배달 누적투자 : 50만 달러 이상 (일부 투자 금액 비공개) 서비스 개요 : 라인 메신저의 딜리버리 플랫폼인 라인맨 (Lineman)과 제휴, 음식 배달 서비스 제공
5		분야 : 가격비교 누적투자 : 시리즈 B 투자 유치 (투자 금액 비공개) 서비스 개요 : 온라인에 판매되는 각종 제품들에 대한 가격 검색 및 비교.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6개국 진출
6		분야 : 프리랜서 플랫폼 누적 투자 : 480만 달러 이상 (일부 투자 금액 비공개) 서비스 개요 : 등록되어 있는 여러 카테고리의 프리랜서 인원들과 특정 업무를 원하는 기업/개인들을 연결

※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자체 조사

[표 7] 태국 최다 트래픽 E커머스 사이트



※ 출처 : Similarweb data <Total visit on Deskton/mobile web from 60 platform>

● 전자상거래

- 2019년 태국 e커머스 이용 인구는 1,310만 명으로 예상하며, 전체 매출은 약 30억 달러 수준임. 결제 환경이 지속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약 35%는 여전히 COD(Cash On Delivery) 혹은 OTC(Over The Counter⁷⁾)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전자상거래 1, 2위 업체는 해외 업체인 라자다, 쇼피로 3위권부터는 월간 트래픽에서 10배 이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전자상거래 업체 중 에이커머스(acommerce)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받고 있음.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고, 해외의 마켓플레이스 사이트들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해당 업체들에 입점한 태국 현지 셀러들에게 전자상거래에서 일어나는 각종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이외에 패션 등의 특정 카테고리 전자상거래에서는 시리즈 B까지 외부 투자를 유치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7) 창구 결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선택한 물건의 결제를 이미 제휴되어 있는 오프라인 매장 각종 창구(편의점 등)에서 대금 지불하는 방식

업체들이 다수 있음

● 태국 스타트업 최신 동향

- 중국 P2P 대출 서비스가 작년부터 크게 유행하였으며, 태국 중앙은행 (The Bank of Thailand)에서는 지난 4월 관련 규정⁸⁾을 발표하면서 사업자의 역할, 해외 사업자 참여 가능 여부, P2P 운영 사업자 기본 조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태국 핀테크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작년까지 누적 투자 4,500만 달러를 기록한 핀테크 스타트업 오미세 (Omise)는 지난 7월 일본 노무라 홀딩스(Nomura Holdings)로부터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투자금액을 투자 유치 완료하였음. 또한 지난 2월에는 각국의 주식 거래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타(Jitta)가 태국 스타트업 사전 시리즈 A 투자금액으로써는 가장 큰 금액인 650만 달러를 로컬 VC인 비콘 벤처 캐피탈(Beacon Venture Capital)로부터 유치 성공한 바 있음

[그림 1] 물류서비스 스타트업 닌자밴



※ 출처 : 닌자밴 서비스 홈페이지 (www.ninjava.co/th)

8) BOT Notification 4/2562

- 동남아 각국에 접근이 용이한 태국의 지정학적 장점으로 인하여 동남아의 물류 허브가 되고자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 2018년 2월 태국 의회는 EEC(Eastern Economic Corridor)⁹⁾ 개발을 위하여 4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통과하였음. 이러한 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되면서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는 3억 2,000만 달러를 태국에 투자하여 물류 허브 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중국의 징동닷컴(JD.com) 또한 현지 재벌기업 센트랄그룹(Central Group)과 5억 달러 규모의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현지의 e커머스 산업에 투자하고 있음

[그림 2] 라인에서 출시한 라인 택시 서비스



※ 출처 : 라인 코퍼릿 사이트 (www.linecorp.com)

- 이러한 대규모 투자로 인하여 태국 국내외 물류 스타트업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딜리버리(Deliverree), 플래쉬익스프레스(Flash Express), 닌자밴(Ninja Van), 더로리(TheLorry) 등은 도시간 장거리 물류에 집중하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겟딜리버리(Get Delivery), 그랩익스프레스(Grab Express), 라라무브(Lalamove), 샌드레인저(SendRanger), 스쿠타(Skootar), 샌드잇(Sendit)는

9) 동부 경제 회랑, 태국 동부 지역의 전반적인 교통, 항만, 공항 산업의 인프라를 개발하는 중장기 국책 사업

라스트마일 딜리버리¹⁰⁾에 집중하면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 또한 에이커머스(물류 솔루션), 드라이버(Drvr, 물류차량 컨트롤 솔루션), 기즈틱스(Giztix, 물류 대행 솔루션) 등 로지스틱테크(Logistics Tech) 업체들도 출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물류 서비스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추가 될 것으로 예상

- 현재 태국에서는 겟(Get, 인도네시아 GoJek), 그랩(Grab, 말레이시아), 라인택시(Line Taxi, 한국)가 승차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방콕의 택시 운영회사인 호와 인터내셔널(Howa International)이 63만 달러를 투자하여 자사의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하고 50바트를 추가하여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픽업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하였음
- 지난 3월에는 개개인의 인터넷 활동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은 심각한 인터넷 보안상의 위협이 있을 때, 영장 없이도 국가사이버안전위원회(National Cybersecurity Committee)가 개인이나 단체를 소환할 수 있게 하고, 동 위원회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서버, 네트워크, 컴퓨터 및 관련 디바이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관련한 현재의 스타트업 성장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

10) 물류업체가 상품을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배송 마지막 구간을 의미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

- 김남걸 센터장 : +62-21-2256-2396 / girl94@kocca.kr
- 주윤지 주임 : +62-21-2256-2396 / juliajoo@kocca.kr

발행인 김영준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35(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www.kocca.kr